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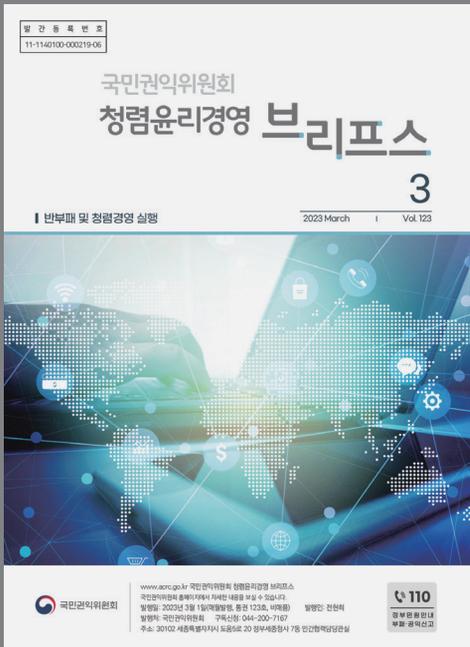
# 3

Ⅰ 반부패 및 청렴경영 실행

2023 March

Vol. 123





## COVER STORY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규제가 심화되고, 기업의 중장기적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경영이 확산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3월호에서는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내재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가능한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통제 및 관리하는 방안과 다양한 실천사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b>01</b>	<b>행동하는 윤리경영</b> .....	<b>04</b>
	청렴윤리경영: 부패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hr/>		
<b>02</b>	<b>기업 인터뷰</b> .....	<b>08</b>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 ENM	
<hr/>		
<b>03</b>	<b>사례 돋보기</b> .....	<b>12</b>
	유통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경영	
<hr/>		
<b>04</b>	<b>보고서 리뷰</b> .....	<b>16</b>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한 툴킷 OECD(2022),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	
<hr/>		
<b>05</b>	<b>문화 속 기업윤리</b> .....	<b>21</b>
	제품결함 은폐로 위협받는 안전   도서, '하늘을 나는 타이어'	
<hr/>		
<b>06</b>	<b>뉴스클리프</b> .....	<b>22</b>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hr/>		
<b>07</b>	<b>웹툰 윤리네컷</b> .....	<b>25</b>
	제3자 리스크	
<hr/>		
<b>08</b>	<b>행사소식</b> .....	<b>26</b>
<hr/>		
<b>09</b>	<b>퀴즈</b> .....	<b>28</b>

---



행동하는  
윤리경영

## 청렴윤리경영: 부패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경영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투자자,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고객과 공급망, 일반대중까지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명성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사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업은 기업 내부와 협력사 등 공급망에서의 부정행위나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준법,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나, 한국 컴플라이언스 연구소에 따르면 오히려 기업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의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기업 내 일상적 활동에 법규 준수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체계를 내재화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청렴윤리경영 및 준법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각 정부나 국제기구 및 표준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제재 및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과 같은 국제표준 인증 등이 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가 발간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2016)'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과 이행단계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제시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위의 세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준법시스템 구축 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 상황 등에 맞추어 수립 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Plan(계획)-Do(실행)-See(점검)' 체계는 경영과정을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 구조로써, 이에 따르면 경영과 업무 절차는 계획-실행-점검,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다시 계획하는 순환구조로 진행된다. 이번 호에서는 가이드라인들이 제시하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방법을 'Plan-Do-See' 중 'Plan(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PLAN

###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 고위경영진의 의지와 선언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K-CP에 따르면 기업전반에 지속적인 기업규범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은 공식행사, 신년사 등을 통하여 준법·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징계나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패에 대한 엄격한 태도(무관용 원칙)를 표명해야 한다.

#### 전담조직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들은 또한 청렴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사내 핵심 인력과 조직에 부과함으로써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K-CP와 ISO 37001가이드라인은 다음 표와 같이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청렴윤리책임자 임명과 전담조직 운영해야 함을 설명한다.

## 〈책임자 및 전담조직의 구성과 권한〉

책임자 임명 및 권한 (최고경영자 및 의사결정 기구가 조직 및 책임자 직접 임명, 권한 부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준법, 리스크 관리 등 준법 윤리경영 운영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li> <li>- 조직 전반에 걸친 조사를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자</li> <li>-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최고이사결정기구에서 임명·선임</li> </ul>
	권한 (규정·지침 등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총괄 및 전담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권한</li> <li>-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내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li> <li>- 문제가 있는 부서 등에 대한 개선 요청 권한</li> <li>- 기관장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li> </ul>
	독립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적으로 직무상 독립성 규정</li> <li>- 임기, 권한, 역할, 직속기구 여부 등 명확화로 독립성 실질적 보장</li> </ul>
전담조직 운영 및 권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책임자 밑에 인원들을 배치하여 조직을 구성</li> <li>- 계획의 수립, 보고, 교육·소통, 모니터링 등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사안을 담당</li> <li>- 기능과 권한 운영규정 등으로 명시</li> </ul>
	권한 (규정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추진 시의성과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정보 접근 권한</li> <li>- 운영을 위한 정보 접근 및 조사권한</li> <li>- 개선요구 권한</li> <li>- 부패 행위 조사권한을 보유한 타 조직이 있는 경우, 협조 관계 구축과 조사 및 자료 요청 권한</li> </ul>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K-CP,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

## 2) 정책 및 절차 수립

### 대내외 소통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위한 규정 및 매뉴얼 개발 시 소통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야 한다.

K-CP에 따르면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직원, 노조 등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UNGC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에서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기업은 정기적 소통을 통해 임직원에게 수립된 규정과 개정 및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 강령(Code of Conduct) 수립

행동규범은 문서화, 가독성, 가시성 및 접근가능성,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 K-CP와 UNGC 지침서, ISO 37001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행동규범 수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내용: 기업은 행동규범 수립 시 아래의 표와 같은 사항을 조직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행동규범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정책·절차 구성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방침과의 일관성</li> <li>● 측정 가능성</li> <li>●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li> <li>●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리스크 고려</li> <li>● 달성 가능한 목표</li> <li>● 모니터링 가능</li> <li>● 의사소통(전파)</li> <li>● 필요에 따른 적절한 갱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가능한 법과의 일관성</li> <li>● 이해관계자의 참여</li> <li>● 규정과 원칙의 동등한 적용</li> <li>● 신뢰기반 사내문화 형성</li> <li>● 접근성과 가독성</li> <li>● 적용가능성</li> <li>● 지속성(지속적 개선)</li> <li>● 자원 효율성</li> <li>● 필요에 따른 갱신</li> </ul>

- 구체적 반부패 관련 행동 규범: 반부패 행동 규범은 구체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정 청탁, 공금 횡령·유용, 이해충돌, 정치적 기부·후원 등의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속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관행(예: 급행료, 이해상충 행동규범 등)들을 ‘특정 위험분야’로 선별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해 볼 수 있다.
- 참여 및 적용: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과 관련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을 명시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모든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2022),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2016),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유엔글로벌콤팩트(2016),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http://bis.or.kr/test003/>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 인터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ISO 37301(준법) 및 ISO 37001(부패방지) 등 경영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 꾸준한 준법 및 청렴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 UK'의 글로벌 방산업체 반부패지수평가(DCI)에서 2021년 B등급을 획득하여 대상기업 134개 중 5위를 차지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 우수기업 표창('21), TI KOREA의 투명경영상('22)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Q1) 반부패 및 청렴경영을 위해 귀사는 어떤 경영 전략과 체계를 구축했나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패방지를 포함한 7대 리스크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을 비롯한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 준법통제기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의 제정, 부패방지를 포함한 리스크 선정 및 교육, 점검 및 모니터링,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리스크 예방활동(문의, 제보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매년 그 결과 및 유효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사내 임원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운영하여 반부패를 포함한 대내외 주요 법률동향 보고, 컴플라이언스 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 부패방지규정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들의 제·개정 의결 및 포상·제재에 대한 의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준법의지 전파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



이며 현장에서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과 전직원들의 준법활동을 계수화하여 임원 및 보직장의 평가에 준법지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 준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법활동이 동료, 회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임직원 스스로 깨닫고 체질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위크(Compliance Week),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업무 관련 자발적 개선활동을 실시한 부서 및 개인에게 평가 가점 부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선,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2) ESG 및 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귀사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방산업체로서 정부사업 참여기회가 많은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테마에 대한 위험성 대응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2014년 제정된 사내 부패방지규정 및 부패방지규정 시행세칙을 올해 초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개정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내 통제성 경비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5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역시 부패방지규정에 반영하는데, 그 내용 중 하나로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발적 직무회피를 하도록 직무회피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였고, 직무관련 공무원과 사적접촉을 하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유관부서 임직원을 상대로 양식 배포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부패법(Bribery Act) 등 위반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한 주요 글로벌업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뇌물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에이전트 등 제3자 제공방법을 통한 경우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당사 역시 해외 거래업체 선정시 사전 실사양식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취득한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고자 영업 등 부패방지 고위험부서에서 리스크를 스스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패) 리스크 식별, 분석 및 평가표를 마련하여 올해부터는 담당자가 매월 리스크 관리결과를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임원 및 보직장 평가에 연계하여 점수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2021년 발족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서 준법통제활동 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강화되는 ESG 기준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한화에너지스페이스의 준법 및 반부패 활동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대응방안으로 회사와 임직원을 법률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은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컨벤션, MCN 등 콘텐츠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CJ ENM(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청렴윤리경영 현황을 여쭙었습니다

## Q1) 반부패 및 청렴경영을 위해 귀사는 어떤 경영 전략과 체계를 구축했나요?

당사는 윤리경영의 실질화를 위해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준법경영위원회가 윤리 및 반부패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한 의안을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의 윤리경영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것 외에 각 사업부문 내 팀장급 인원을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로 임명하여 실무진 선에서의 준법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윤리 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최고 규범인 'CJ인의 약속'의 위임을 받은 '행동강령 하위규범'을 통해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평가에 반영합니다.

또한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인 ISO37301을 취득하여, 모든 사업부로 하여금 매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발굴·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년도 경영 목표에 반영하여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익명, 실명, 외부 플랫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윤리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연간 1회 이상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윤리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2) 2023년 반부패 및 청렴경영에서 귀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요?

당사는 올해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직원과 협력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유착관계 및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공급망 체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운영해왔고, 협력사와 매입거래계약 체결 시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계약문서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사익 추구를 위해 협력사를 이용하거나 자격 미달의 협력사와의 거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와 거래하는 주요 사업부에 대해 신규 협력사의 선정,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협력사 평가, 협력사 교육과 관련한 「협력사 거래관리 가이드」를 제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협력사 평가 시스템의 전산화, 「협력사 거래관리 가이드」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개선, 가이드 확대 제정, 신규 계약 체결 및 거래처 등록 시 팀장급 임원이 구성원과 협력사간 이해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실질화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부별 「협력사 거래관리 가이드」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협력사 관리 시스템이 조직 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Q3) ESG 및 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귀사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CJ ENM은 지속 성장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진정성, 지속성, 실질적 도움'이라는 세 가지 실행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공동의 약속인 'ECP(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ESG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리스크의 극복을 위해 당사의 공급망 내에 있는 협력사들에 대한 리스크 진단, 협력사 인권 경영에 관한 실사 및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동반실천을 달성하고 공급망 내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희경님, CJ ENM 이경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통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경영

사례 돋보기



유통산업은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그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소비자에게 이르는 공급라인이 되기도 하며, 최근 소규모 셀러의 증가로 플랫폼화됨에 따라 기업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특히, 국내 소매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대형 유통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침해,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권 위협, 납품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유통기업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고객, 거래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패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유통기업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돋보기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고찰하고, 다양한 기업과 거래관계에 놓인 유통기업의 반부패정책, 부패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마존(Amazon)

2018년 아마존 중국지사의 직원이 데이터 유출과 조작을 대가로 불법 중개인에게 건당 80 달러에서 2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 적발되었다.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리뷰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의 부정적 리뷰삭제 및 정지계정 복원 등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아마존의 해외소매담당 부사장 에릭 브루사드(Eric Broussard)는 중국의 부정적 관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의심되는 미국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직원을 조사하였다. 이후, 아마존은 업무 행동 및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직원의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023년 현재 아마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행동 및 윤리 강령을 안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마존의 2022년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치한 지사도 지역, 주, 연방 및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어떤 형태로든 뇌물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 <아마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목적	정책, 절차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총괄담당	윤리 담당 부사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고객사 인터뷰</li> <li>- 내부고발 핫라인</li> <li>- 중앙집중식 조사 및 보고 프로세스</li> <li>- 외부거래 부패 위험평가 및 규정준수 실사 시스템 도입</li> <li>- 컴플라이언스 내부교육 실시(온라인 및 대면)</li> </ul>

출처: 아마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아마존은 현재 운영하는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무, 회계, 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기, 자산 운용, 부패를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감사 기관과 업무 행동 및 윤리 부서(Business Conduct and Ethics team)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 2. 이마트

이마트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반부패·윤리경영 정책과 제도를 공시하고 있다.

‘임직원, 나아가 협력사와의 상호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방식(way of working)’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신세계 크레도(CREDO, 신조) 실천원칙’을 수립하며 임직원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을 12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임직원의 가치판단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의 주요 규정안내와 함께 실제 불법 및 모범사례를 안내하며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 〈신세계 크레도 12원칙〉

1. 준법경영
2. 사실왜곡 금지, 정확한 보고
3. 공사구분명확, 회사 정보/자산 보호
4. 사원간 예절준수, 성희롱/폭언 금지
5. 부당한 지시 금지
6. 청탁금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7. 금품향응 수수금지, 신세계 페이
8. 고객만족, 고객약속 준수
9. 고객 재산 / 정보 보호
10. 협력회사 동반성장, 공장거래
11. 친환경 경영, 사회 공헌
12. CREDO 및 회사규정 준수

출처: 이마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이마트는 외부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호 존중, 부당 요구 근절, 협력사의 경영정보나 기술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서를 모든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거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에도 적용되며, 2차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1차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마트는 모든 바이어, 점포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윤리경영, 공정거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그 외에도 본인 뭇은 본인이 계산하는 신세계 페이, 외부에서 받은 금품과 편의를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제도, 거래관계에서 사전에 지인 관계를 신고하는 지인거래 자진신고 제도 등을 통해 업무방식에서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 참고

- 서용구, 이현이, 정현승(2022), “유통산업의 ESG 전략과 사례: 월마트, 아마존, 이마트, 쿠팡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27(2), 77-99.
- 윤남수, 김영이(2014), “국내 유통 소매점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인식차이 분석”, 경영교육연구, 29(5), 443-462.
- 국민권익위원회(2020.08),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 아마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mazon’s 2021 Sustainability Report”
- 이마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Sustainability Report”
- Jon Emont, “Amazon Investigates Employees Leaking Data for Bribes”, The Wall Street Journal, 2018.09.16. <https://www.wsj.com/articles/amazon-investigates-employees-leaking-data-for-bribes-1537106401>



##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한 툴킷

■ 보고서: OECD(2022),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



OECD는 2022년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70~95%를 대표하며, GDP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일자리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OECD, 2017).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슷하게 부패에 노출되는 반면 대기업에 비해 반부패 및 규정 준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패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부패방지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정부나 국제기구, 비즈니스 조직, 전문협회, 대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조직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툴킷을 소개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액션을 취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 또한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툴킷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중소기업의 반부패 준수 활동을 돕고자 한다.

##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툴킷

### 1. 온라인 도구를 통한 반부패 인식 제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부패 요소를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어 기업의 반부패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 OECD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

(Self-Evaluation Tool for Corruption Risk Assessment Processes)

2021년 OECD는 특히 중소기업에 맞춤형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Self-Evaluation Tool for Corruption Risk Assessment Processes)”를 출시했다. 이 평가도구는 국내외 부패 위험 표준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주제를 기반으로 산업이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확립된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출처: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반부패 및 기업 청렴성(SEACAB) 프로젝트를 위한 OECD 이니셔티브

### 2. 수출업체를 위한 반부패 지침

이 지침들은 해외 사업 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뇌물 방지법과 규정, 부패 방지 조치 도입을 위한 법적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에 관한 OECD 모범 사례 지침

(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2009년 OECD 뇌물방지작업반(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은 내부통제와 윤리, 규정준수에 관한 모범 지침을 최초로 발표했다. 이 지침은 최초로 기업을 위해 제정된 정부 간 반부패 지침으로써 2021년에 뇌물 방지 권고안을 점검하면서 개정되었다. 지침에는 기업이 해외 뇌물수수 방지 및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 마련을 위해 고려할 16가지 모범 사례를 담고 있다.

출처: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78>

### 중소기업을 위한 G20 및 B20 반부패 툴킷

2015년 G20 반부패 워킹그룹과 B20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툴킷을 발표했다. 이 툴킷은 사용하기 쉽고 짧고 단순하게 설계되었다. 중소기업이 부패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뇌물 청탁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출처: [g20.org.tr/wp-content/uploads/2015/12/anti-corruptiontoolkit-for-smes.pdf](http://g20.org.tr/wp-content/uploads/2015/12/anti-corruptiontoolkit-for-smes.pdf)

### CIPE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

(Doing Business With Integrity report)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기관으로 2020년 11월에 “신흥시장 기업을 위한 가이드: 윤리행동 및 기업 청렴성 강화(A Guide for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Strengthening ethical conduct & business integrity)”을 발간하였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생존 차원에서 비즈니스 청렴성을 다룬 실제 사례와 문제 극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Doing Business With Integrity report)는 기업 청렴성을 중심으로 실제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았다.

출처: <https://transparency.ch/fr/nouvelles-publications/>

### SCCE "1일 1달러의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소기업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A Compliance & Ethics Program on a Dollar a Day: How Small Companies Can Have Effective Programs)

2019년, 비영리단체 SCCE(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는 소기업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 중 "성실한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향한 발걸음(Steps toward a diligent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에서는 중소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시 따라할 수 있는 절차를 간단 명료하게 다루고 있다.

출처: <https://www.corporatecompliance.org/compliance-ethics-program-dollar-day-how-small-companies-can-have-effective>

### 3. 중소기업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e-러닝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패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 예방과 탐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있는 거래(현금 지급 요구, 의심스럽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위장 회사의 송장 지불 요구, 가상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위험신호' 인식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부패 방지 규정준수의 모범 사례를 다루는 컨퍼런스 및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도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 또는 유사한 산업·부문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동료와 네트워킹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회의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e-러닝과 가상회의를 이용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4. 제3자 실사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현지의 파트너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제3자 실사가 중요하다(1999년~ 2014년 사이에 종결된 해외 뇌물 수수 사건의 81%가 중개인 및 기타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음). 이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파트너 심사를 돕는 제3자 실사 지침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실사 도구

관리국 웹사이트에서는 미국 외 국가의 관할 구역에서 제3자와 계약하려는 회사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실사 수행 방법, 부패와 관련된 시장별 문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사용하기 쉽도록 대화 형식으로 제공되며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적절한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지침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인 (1)국가위험(정치, 경제 및 비즈니스 위험에 대한 이해), (2)회사/파트너 위험(잠재적 외국 파트너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획득 방법 및 장소) 및 (3)구매 위험(해외 시장에서 사기 회피 방법에 대한 정보)을 기술하고 있다.

출처: <https://www.trade.gov/perform-due-diligence>

### ICC(세계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반부패 제3자 실사: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

(Anti-corruption Third Party Due Diligence: A Guid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Get the document)

2015년 ICC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제3자 실사 가이드를 발행했다. 이 가이드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대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실사하는 데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에서의 제3자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 참여 관련 부패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https://iccwbo.org/publication/icc-anti-corruption-third-party-due-diligence/>

## 5.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기소사건에서의 '딜레마'와 같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OECD 보고서(Corporate Anti-corruption Compliance Drivers, Mechanisms and Ideas for Change)에서는 부패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경계해야 하며, 실제 사례 중 특히 같은 분야의 부패행위 적발 사례를 통해 사내 규정 준수 전문가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 소유주, 클라이언트가 부패 위험에 주의하도록 함을 강조한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국가 모니터링 및 주제별 연구 보고서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country monitoring and thematic studies reports)

국가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해외 뇌물 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 국가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사례 연구 및 정보가 담겨있다. 뇌물방지작업반(WGB, Working Group on Bribery)은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과 관련한 범분야 문제의 주제별 연구를 촉진하고 최근의 보고서에서는 반부패 규정 준수와 비재판적 해결, 해외 뇌물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보고서는 OECD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oecd.org/corruption/countryreportsontheimplementation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

#### 참고

OECD(2022),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



문화 속  
기업윤리

## 제품결함 은폐로 위협받는 안전

### 도서, ‘하늘을 나는 타이어’



〈이미지 출처: 예스24〉

제품결함에 의한 리콜은 정직함과 공정함을 갖고 시행해야 하며, 리콜 과정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책임지고 제품 결함을 해결하도록 하는 리콜 조치는 법적 의무이고,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기본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기업 평판, 소비자 불신, 재무위기 등으로 자발적 리콜을 행하거란 기업에게 어려운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

2000년대초 일본 요코하마에서 달리던 트럭의 타이어 이탈로 행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조사 미쓰비시자동차는 사고원인을 운송사의 정비불량이라 주장하고, 차체결함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해온 정황이 밝혀지면서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하늘을 나는 타이어’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이다. ‘호프자동차’의 ‘품질보증팀’은 차축과 타이어를 이어주는 허브가 파손되는 차체결함을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다.

발매된 신차의 실적부진으로 담당임원과 부서는 잦은 사고발생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여 허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인맥을 통한 무리한 은행융자 요청 등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철저한 정비를 하였음에도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중소운송기업 ‘아카마츠운송’에는 거액의 보상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한다.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개인의 안위가 우선시되고, 부정부패와 은폐 규모가 점점 커진다.

내부고발을 앞두고 ‘호프자동차’의 기술개발연구소의 담당자는 ‘우선 옳지 못한 부분을 규탄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요?’라며 모든 것의 기본을 말한다. 결국 호프자동차의 내부고발, 은행 융자담당자의 엄격한 컴플라이언스에 근거한 업무처리, 자동차정비를 철저히 시행해온 운송기업의 근거자료 등이 뒷받침이 되면서 기업의 부정이 파헤쳐진다.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는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중소운송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해 기업의 핵심인력이 이탈되기도 한다.

제품결함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표면화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는 개인의 성숙함과 양심이 더해져 온전히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구본관(2005). 미쓰비시자동차의 위기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조현진, 김현경(2018).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의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탐색. 윤리경영연구, 18(1), 141-173.



뉴스클리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민권익위, 유엔개발계획과 손잡고 개도국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개선 지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에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14일부터 3일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 반부패 정책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포털 공유사업 정책연수를 화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이번 정책연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운영 사례에 기반해 국가별로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의 자체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국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됐다. 몽골은 신고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우즈베키스탄은 청렴포털의 '원스톱 서비스'를 주목하여 신고시스템의 효율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소보는 청렴포털의 '신고도우미' 등 기능 편의성 증진에 집중하여 신고자가 신고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의 선진 운영경험으로 개도국의 신고시스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2월 14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061](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061)

###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2월 7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118](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118)

## 국내외 동향

###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도(CPI)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 31위로 최고 성적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에서 한국은 63점(100점 만점), 31위(180개국)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의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킨 노력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대 최고의 성적에도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와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소폭 하락하여 향후 우리사회에 청렴의식 내재화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바이다

■ 한겨레 2023년 1월 31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7674.html>

### 미국 법무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발적 공개 정책(VSD) 시행 발표



2023년 2월 미국 법무부 뉴욕지방 검찰청은 새로운 자발적 자기 공개 정책(VSD; voluntary self-disclosure)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공개하고, 수사 및 정부에 협력하며 시기 적절하게 시정하는 경우, 기업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양형지침(USSG;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벌금 범위의 최저 50 % 미만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위법 행위가 국가 안보, 공중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위법 행위가 회사 전체에 만연한 경우, 회사 경영진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번 정책시행의 목표는 미국 연방 검찰청이 VSD를 표준화하며,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식별,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공개 및 시정’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미국 법무부 2023년 2월 22일

<https://www.justice.gov/usao-edny/pr/damian-williams-and-breon-peace-announce-new-voluntary-self-disclosure-policy-united>

## 텐센트, 지난해 뇌물·비리 혐의로 직원 100명 해고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Co., LTD.)는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법과 회사정책을 위반한 직원 1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23개의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2019년부터 반부패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며, 회사 내에서 발견된 윤리 위반 사건과 세부사항을 공시하였다.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와 메이뤄(Meituan)을 포함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윤리위반사례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연간보고서는 뇌물을 받은 드라마 제작부서 직원 Zhang Meng과 미디어부서 직원 Li Zengwang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텐센트 성명서에는 2021년에 비해 올해 사건과 연루된 직원의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무관용 입장을 강력히 표현했고, 관련자들과 더불어 뇌물제공에 연루된 외부기업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3년 1월 16일

<https://www.scmp.com/tech/big-tech/article/3206944/tencent-fired-more-100-people-and-blacklisted-23-firms-last-year-fighting-bribery-and-embezzlement>

## 에릭슨, 美서 기소유예 합의 지키지 않아 다시 2천700억 과징금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2019년 미국에서 기소 유예를 받은 부패·뇌물 지급 사건과 관련해 합의 내용을 위반해 2억670만 달러(약 2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에릭슨은 2000년~2016년에 중국, 아프리카 지부티 등 외국 사업 수주를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를 위해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19년 미국 정부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에릭슨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징금 등 10억6천만 달러(약 1조3천억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여 기소가 유예되었으나 이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ISIS)에 에릭슨이 접근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 에릭슨은 혐의 정보와 증거를 완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다. 에릭슨은 혐의를 인정하여 2억6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합의에 따라 벌금 납부 외에도 2024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연합뉴스 2023년 3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3127800009?input=1195m>



## 제3자 리스크 관리

웹툰

### 윤리네컷

사장님, 우리도 유럽 수출을 대비해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마련했으니  
문제없지 않나요?

'독일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었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도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납품사 등 제3자의 부패, 인권 및 환경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대기업 해외지사의 부품업체에서  
14세 미만의 아동노동이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3만 달러 벌금은 부품업체에 부과되었지만  
원청사에 대한 책임 요구와 비난이 상당합니다.

결국 원청사는 공급망 전체에  
교육 실시, 구직자의 신분증 검증,  
익명의 제보 핫라인 설치, 인력대행사 사용  
억제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또한 우리처럼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 중에는  
현지 중개인이 사업을 따내려 정부나 타기업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OECD 뇌물방지 협약에 따른  
국내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이나 해당 국가의 뇌물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3자까지 CP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부패 리스크 매핑\*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예방, 관리 지침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필요하겠군요.

내부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 고위경영진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부패리스크 매핑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 경감조치를 취하며, 잔여 리스크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 후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행사소식

## 윤경ESG포럼, 제20회 윤경CEO서약식

CEO 및 사회리더가 한 자리에 모여 윤리경영 실천 의지 공표를 통해 기업과 사회에 윤리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서약식으로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

- 주최** 윤경ESG포럼  
**일정** 2023년 4월 20일(목)  
**장소**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  
**참고** [https://www.ips.or.kr/05\\_03.php](https://www.ips.or.kr/05_03.php)

### 제3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의거하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을 실시,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사례를 모집합니다.

- 시상내역 : 윤경ESG포럼 대표상 3점, 국민권익위원장상 2점(예정)
- 공모기간 : 2023년 4월 5일(수)까지
- 공모분야 : 윤리경영 실천(투명한 기업철학, 윤리경영 체계, 글로벌 확산, 윤리경영 문화확산)

## 파리 OECD Global Anti-Corruption & Integrity Forum

'영향력을 위한 조치: 청렴성 강화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행동을 위한 정책 솔루션과 비즈니스 혁신을 중점으로 논의하는 포럼

- 주최** OECD Global Anti-Corruption & Integrity Forum  
**일정** 2023년 5월 24일(수)-25일(목)  
**장소** OECD 파리 본부(온라인 회의)  
**참고** <https://www.oecd.org/corruption-integrity/forum/home/>



안내

## 2023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3.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이메일(hse20@korea.kr)로 송부, 선정기업 유선 통보 예정

###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 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 ① 운영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1월  
※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예정
- ② 개설 과정
  - 과 정 명 :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1시간30분 ~ 2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운영방식 : 집합 교육(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Zoom, 구루미 등) 전환 가능)
- ③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의 의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공연 방식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담당자 (☎043-901-6116 최길호사무관, 6118 김준형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

기업명	규모①	업종②	대상(인원)	희망일자③	교육방법	교육장소④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⑤
(주) 000	중견기업	제조업	임원 30명	'23. 0.0	집합/온라인	서울 본사 강당	홍길동	감사실	휴대전화 사무실

- 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②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 2023년 4월 이후 최소 2개 일자 기업,  
④ 지역과 장소 동시 기재, ⑤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 전화 번호 동시 기재



## 퀴즈

### Q. 제3자로 인한 부패 위험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제3자 관리에 대한 안내 및 교육
- ② 공급업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
- ③ 내부고발자 징계
- ④ 협력업체에 청렴윤리경영 운영규정 및 메뉴얼 공유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3월 24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가은님, 김동준님, 이명하님, 정다은님, 최보빈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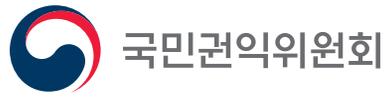
축하합니다!!

###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국민권익위원회